

## 인구 증가와 사회 규범

한국 행동 과학 연구소 정 범 도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규범의 여하가 그 사회의 인구 증가 여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중요한 이론적 주장이며 그 실제적 의의도 꽤 클 것이다.

이런 주장이 가정적으로나마 주어진 제목 뒤에 숨어있다. 이 주장에 대하여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 근거를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한다. (논리적으로는 인구증가가 사회 규범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이문제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사회규범이란 가치관, 가치등과 같이 한 사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행동상황에서의 당위 또는 바람직함의 방향을 규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Kluckhohn(클럭호른)의 가치관의 모형을 빌려, 그 속의 규범 내지 가치관의 방향이 어떻게 인구증가의 큰 원인인 인구 내지 산아 조절행동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예시해보자.

Kluckhohn은 어느 사회든지 땅면하게되는 몇몇 “인간생존의 기본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런 기본문제에 대하여 어떤 당위 또는 “관”의 방향을 취하느냐에는 사회마다(또는 개인마다)서로 다를 수도 있다.

첫째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사회에 따라 차가 있다. 즉 사회에 따라 그 본질을 본래 “선”하다고 보는 관, “악”이라고 보는 관, 선은 아니고 악도 아니고 “백지”와 같다고 보는 관이 있다. 또한 어떤관을 취하든 인간성이 본래 “불변”한 것으로 보는 관과 “가변”한 것으로 보는 관이 있다.

인간성의 성선, 성악등은 산아조절행동에 별

로 관계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인간성을 본래 불변, 가변으로 보느냐는 이와 관계가 깊을 것이 쉬이 짐작된다. 즉 인간성을 불변으로 본다는 것은 “인간은 종래 조상이 해 오던대로 아이를 많이 낳게 마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것이며, 이런 생각에서는 종래 관습에 따르지 않는 소가족의 인간에는 별로 생각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인간성을 가변적인 것으로 보느냐는 그의 생활행동의 가변성의 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두째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느냐에 사회마다 차가 있다. 어떤 사회에서는 그 관계를 “인간은 자연아래에 예속되어 있는 것, 또는 인간은 자연속에 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어떤 사회에서는 그 관계를 “인간은 자연 위에서 이를 정복하는 것”이라는 관을 가지고 있다. 자연에 대한 예속관, 숙명관, 조화관에서는 사람이란 그리 함부로 자연에 도전해서는 안되며(소용도 없으며), 자연의 흐름에 너무 인공 인위를 집어넣는 것도 무익한 것이든지 죄악이 된다. 이런 관념이 한 사회규범으로서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각종 산아제한, 인공제한이 활발할 수가 없을 것은 쉽게 짐작된다. 산아제한행등은 인체의 자연적인 흐름에 어떤 인공, 인위를 가해서 그 흐름을 방해하는 하나의 도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도전이 악일 경우, 온갖 산아제한 행동도 한 불안이나 죄악으로 느껴지게 된다. 자연 내지 자연적인 것에 대한 숙명감 내지 의도같은 기실 인간이 인간의 일을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에 저해적인 규범이라고 할수 있다. 한국엔 특히 한국의 농촌에 아

직 이런 자연에 대한 예측관 조화관이 상당히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째**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사회마다 차가 있다.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종적 인간관계라고 믿는 사회가 있고, 한편 어떤 사회에서는 횡적 인간관계 또는 개인 자체가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이라고 보는 곳이 있다. 예컨대 삼강오륜이라는 우리의 근본 규범에서 대부분이 종적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종적 관계를 줄지어 이은 대표적 인 것이 족보며, 그것을 중심으로 대가족제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친자의 관계를 대가족제도 속에서 근본적으로 종적인 것으로 볼때 자녀들을 목적적인 위치보다 수단적인 위치에 처져있기 쉽다. 집안을 잇기 위하여, 부모의 노후를 보살피기 위하여, 일꾼으로서 집안살림을 돕기 위하여……이 모두가 흔히 가족계획을 하지 않는 동기로서 나열되는 조항들인데, 그 연유를 우리는 종적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규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째** 시간의 어느 곳에 생활관념이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여러 사회는 과거지향적이나 현재지향적이나 미래 지향적이나에 차가 있다. 가족계획, 인구계획도 포함하여 모든 계획은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행동이다. 내일이, 오늘과는 다른 그런 내일이 올 것이라는 신념이 미래지향적의 골자다. 좋은 것 모든 것은 옛날에 있었고 옛날대로 사는 것이 규범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어떤 혁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은 뻔하다.

마지막으로 Kluckhohn은 바람직한 인간형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향락 온정형, 절제 격조형, 활동 봉사형이라고 외역 할 수 있는 형을 제시하고, 사회에 따라서 그 이상형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이스 신화를 빌려, 이 세 형을 세신 Dionysus, Apollo, Prometheus의 생활형으로 설명도 하였다. 너무 간단히 규정지을것은 아니지만, 이 셋은 남구형, 동양형, 신표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관심가져지는 것은 활동 봉사형 즉 Prometheus적인 인간형을 가치롭게 여기는 사회규범이다. 여기에 활동이란 향락 사색도 중요하지만 실천, 행동, 업적이 중요하다는 능동규범을 말하며, 봉사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민성과 그 해결에의 봉사적인 행동자세를 말한다. 이 두가지가 다 적극적인 인구 조절행동의 밑받침이 되는 것은 역시 쉽게 짐작된다.

이상 Kluckhohn의 가치론을 빌려, 어떤 사회 규범이 인구조절행동에 “방해적”일 것이고 또는 조장적일 것이나를 논해보았다. 기실 가족계획 운동이 활발성이 어느정도까지 큰 효과를 걸어 드리다가 한때 더 효과를 얻지못하는 한계 뒤에는 여러 “방해적”인 사회규범이 도사리고 있는 까닭이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사회규범에는 위와 같은 인간관, 대 자연관, 인간관계관, 시간관, 인격관 이외에도 물론 여러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각가지 일장에서 형성해 본 사회규범이 가족계획 행동에서 한 행동규범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갖느냐는 종래보다 좀 더 체계적인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